

지구촌 양계뉴스

중국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중국이 지난 4월 28일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정부가 닭 사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 가금 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게 됐다.

상무부의 결정에 따르면 ‘필그리姆스 프라이드’와 ‘타이슨 푸드’ 등 중국측 조사에 협조한 일부 업체를 제외한 모든 대중국 닭고기 수출업체가 31.4%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응한 업체에는 3.8%에서 11.2%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관세가 부과된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번 관세조치가 중-미 양국의 무역마찰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며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가까스로 찾아온 무역 평화에 암운을 드리우지 않을까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닭고기 관세의 시초가 지난 9월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에 따른 보복성 조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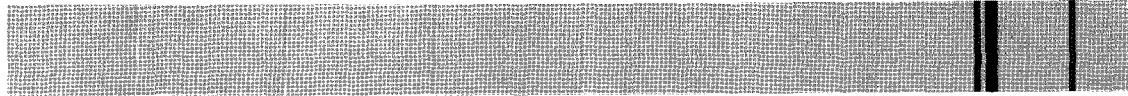
실제로 중국이 미국 닭고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날짜는 미국이 중국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이번 관세가 무역 보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절차 및 계획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닭고기 외에도 4월에만 러시아, 미국, 유럽 등을 대상으로 철강제품과 섬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무부 공정거래국은 올해 1/4분기에도만 중국이 19건에 걸쳐 11억9천만달러에 달하는 무역 제소를 당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농산품에 대한 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여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 목축업협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의 닭고기 수입이 47% 증가했으며,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수입된 40만7천톤의 닭고기 중 미국산이 35만9천톤으로 9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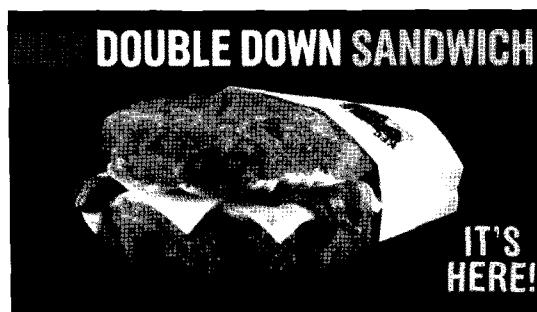
상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옥수수와 콩 등 닭고기 사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으로써 불공정한 무역을 조장했다.

FT는 2008년 중국의 미국 닭고기 수입액이 7억2천200만달러에 달했다고 전하며 중국인들이 닭발과 닭날개 등 미국인이 기피하는 부위까지 먹기 때문에 단위 가격이 20% 비싸다고 보도했다.

– 파이낸셜 뉴스

미국

‘빵 대신 치킨’ 신개념 샌드위치 출시



‘빵 없는 샌드위치’가 미국에서 출시됐다. 기본 재료인 빵을 넓은 닭 가슴살로 대신한 실험적인 샌드위치다.

페스트푸드 브랜드 케이에프씨(KFC)는 빵 대신 치킨을 사용한 ‘더블 다운 샌드위치’(Double Down sandwich)를 지난달(현지시간)부터 미국 각 지점에서 판매한다.

고탄수화물을 염려하는 고객들을 겨냥한 이 샌드위치는 치킨 두 쪽과 베이컨, 다른 종류의 치즈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킨 조리 방법에 따라 튀겨서 사용하는 오리지널 메뉴와 구운 것을 사용하는 ‘그릴 더블 다운’ 메뉴로 나뉜다.

KFC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오리지널 메뉴의 개당 열량은 540kcal이며 지방 함유량은 52g이다. 그릴 더블 다운 메뉴의 열량은 460kcal, 지방은 23g으로 조금 낮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미국 외 지역의 판매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 서울신문

음식만 잘 골라 먹어도 치매위험 떨어져

채소와 생선, 견과류 등은 많이 먹고 붉은 색 고기와 버터 등을 적게 먹으면 노인성 치매 위험을 4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니콜라오스 스카르메아스 박사는 65살 이상 뉴욕 시민 2,100여 명을 대상으로 4년간 식습관을 조사해 1년 6개월마다 치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를 겪을 위험이 최고 40% 가까이 낮은 것으로

로 나타났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음식들에는 올리브기름을 이용한 샐러드 드레싱과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생선, 토마토, 닭고기, 브로콜리, 푸른잎 채소 등이 있으며 반대로 붉은 색 고기와 버터,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생선과 견과류 등에 많이 든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물질, 엽산 등은 뇌를 직접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카르메아스 박사는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의학전문지 ‘신경학 기록’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 상파울루=연합뉴스

2월 브로일러 수출량 감소

2010년 2월 미국 가금류 수출량과 수출액은 전년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해외농업국에서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수출량은 18.7% 감소한 251,651톤, 수출액은 11.4% 감소한 2억 8,760만 달러를 기록했다.

브로일러(닭발 제외)의 2월 수출량은 2009년 2월보다 18% 감소한 208,700톤을 기록했다. 수출액은 17.2% 감소하여 2억 1,48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0년 2월 브로일러 수출 감소는 러시아, 중국 무역 중단과 이라크, 쿠바 수출량 감소

로 인한 것이다.

2010년 2월 브로일러 러시아 수출량은 10,510톤, 수출액은 910만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71.8%와 81.9%가 감소한 값이다.

중국 수출량은 5,818톤, 수출액은 660만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77.9%와 77.1% 감소했으며, 이라크와 쿠바 수출량은 각각 51.5%와 31.1%씩 감소했다.

반면 홍콩, 앙골라, 베트남, 멕시코 수출량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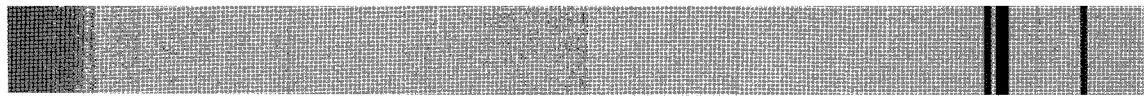
2월 홍콩 수출량은 대폭 증가하여 16,154톤, 수출액은 2,08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각각 206.8%와 302.6% 증가한 값이다.

앙골라의 경우 수출량은 70.9%, 수출액은 102.4% 증가하여 각각 13,860톤과 1,210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수출량은 125.3%, 수출액은 117.5% 증가하여 각각 10,269톤과 960만 달러를 기록했다.

멕시코 수출량은 34,005톤을, 수출액은 2,63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각각 16.1%와 0.4% 증가한 값이다. 또한 한국, 타이완, 필리핀, 일본 수출량도 상당량 증가했다.

닭발의 경우 2월 수출량은 20,079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2009년 2월보다 34.6% 감소한 양이다. 반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33.9% 증가한 3,17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2월 기록을 세웠다. 참고로 닭발 수출 가격은 1톤당 평균 1,580달러로 2009년 2월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닭발 총 수출량의 75.2%인 15,109톤이 홍콩으로 수출되었으며 이는 전년보다 398.6%나 증가한 양이다. 또한 15.6%인 3,127톤은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나 이는 전년보다 88.4% 감소한 양이다.

- 미국가금류수출협회

닭에 백신접종해 신종플루 유행 예방

닭에 백신을 접종시키면 그 닭이 낳은 달걀의 항체로 H5N1의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4월 20일 국제백신연구소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 H5N1 백신을 접종한 닭의 달걀로부터 H5N1에 대한 항체(H5N1-specific antibodies)을 분리하여 마우스를 이용해 H5N1과 이와 유사한 H5N2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실험했다. 백신 접종은 비강을 통한 분무(spray) 방식으로 투여했다.

그 결과 이 달걀에 존재하는 항체, 즉 항바이러스단백질인 ‘면역글로불린항체(IgY, immunoglobulin)’가 현재의 H1N1 대유행을 비롯한 인플루엔자 창궐에 대해 저렴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통제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PLoS ONE에 발표됐다.

- 국민일보

일본

한국산 가금육 등 수입정지조치 해제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한국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한국 정부가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해 AI 청정성이 확인되어 2010년 4월 1일 이후 도축/부화된 한국산 가금육 및 병아리에 대한 수입 정지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 농수산물무역정보

